1

잃어버린 거인의 세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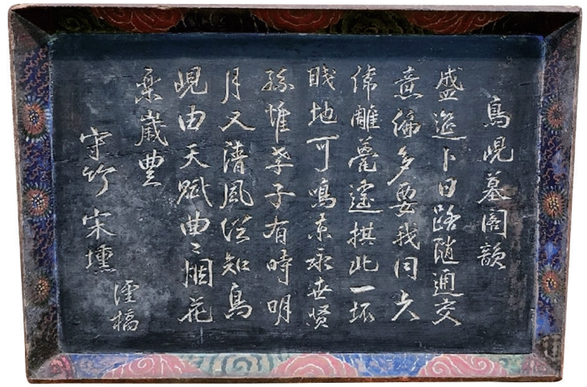
송진한 고하 송진우 기념관, 전남대 명예교수

고하 송진우 선생은 우리나라 한말 1890년 경인년에 전남 담양군 금성면 고비산[1] 자락(현 손곡길 12-1)에서 태어났다. 그의 호도 이 산의 아래라는 의미로 '고하'라고 한다. 그 산의 기운이 능선을 타고 흘러 혈이 맺힌 곳이 그의 태생지이다. 현재는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그 산의 맥이 끊어졌다고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그 산 주변의 형국은 병목 안처럼 되어 있는데 이를 '비봉포란' 형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병목 안처럼 숨어 살기 좋으며 전란이나 재해 때는 은거지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어느 땐가 거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시감을 키워주는 지세다.

고하 송진우 태생지에서 바라본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고비산

1) 고비산의 한자어로는 古碑山, 古比山, 高飛山 등으로 쓰여져 왔다. 조선총독부 출간 〈대동여지도〉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면, 그 산 지형에 대한 형태는 나오나 지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구언이나 전승만으로 그 명칭을 확정하기에는 좀더 숙고가 필요하다.



수죽 송훈 선생의 조현묘각운 시판

천은 통칭 봉황천으로 불리는데 손곡천, 외추천 등을 포괄한다. 산 주변 일원에 자생하는 대나무나 오동나무 등을 보더라도 봉황이 좋아하고 머무르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봉황은 상서롭고 고귀한 뜻을 상징하는 새로 세상에 나타나면 나라가 크게 안녕하다고 한다. 그러면 빼어나고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 나라를 풍요롭고 강녕스럽게 한다고 한다.

한편 고하는 금(도)가지라는 애칭으로 불려졌다. 그의 탄생지에서는 항아리나 질그릇을 도가지라고 불렀다. 혹은 그냥 귀한 '가지'나 '금가지'라고 불렀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어로 보면 귀하고 보배로우며 소중한 '도가지다'는 뜻으로 '금도가지'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구언이나 전승에서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의 하나로 고하의 엄친 수죽 송훈(守竹 宋壎) 선생의 한시를 들어볼 수 있다. 이 한시는 일본에서 발굴되어 국가유산청에 기증된 시판에 들어 있다.

그 시 '조현묘각운(鳥峴墓閣韻)' 7언 율시 4구에 '한 도가지(질그릇)가 땅에 묻혀 있어 동쪽(나라)을 울릴 만하네(一坏眠地可鳴東)'라는 시구가 있다. 여기에서 도가지는 지금은 땅에 묻혀 있어 그 높은 가치와 존중할 만한 소중함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의지나 절개를 펼칠 시에는 금도가지로써 나라를 울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고하는 원래 뜻대로 되지 못하는 비운의 거인이 되고 만다. 그는 온갖 분투 속에 3·1 독립운동의 무대를 뒷받침하면서 당대 사회를 통합해서 이끌어간다. 땅에 묻힌 항아리가 금도가지가 되도록 독립지사들을 포용하는 힘을 발휘해 독립 만세를 외친다. 그런 시대적 소명은 독립 정신을 재확인하게 했지만, 일제강점기는 변혁하지 못하는 미완의 거인이 되고 만다. 수죽 선생은 고하 태생지 고택과 현재 창평면 광덕리 일원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근대 학교 체제가 성립되기 이전의 글방이나 서당 또는 학숙을 열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시대적 변화의 대처 방안으로 신학문을 배울 것을 고하에게 권유하게 된다. 이에 고하는 엄

친 수죽 선생의 훈도로 현 창평면 용수리의 상월정으로 글을 배우러 다닌다. 그 상월정은 월봉산 용운 저수지 위에 있는 달이 머무는 정자라고 불렸다. 그곳의 영학숙은 영어, 외국어 및 산술, 지리 등을 외부에서 선생님을 모셔와 가르치는 곳이었다.

그 학숙은 교육생이 늘어나자 창흥의숙, 창평학교, 현 창평초등학교로 전환하게 된다.

시기상으로 보면, 영학숙은 현 광주서석초등학교나 숭실학교 보다 앞서 설립한 근대 학교의 모태였다. 교육생으로는 혼인으로 인해 와서 수학하고 있던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고하 송진우, 근촌 백관수(芹村 白寬洙),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등 근대 시대의 걸출한 인물들이 수학하였다. 이들 인물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영학숙은 근대 학교의 산실이었고 독립 운동의 사상을 구축하고 실천하는 배움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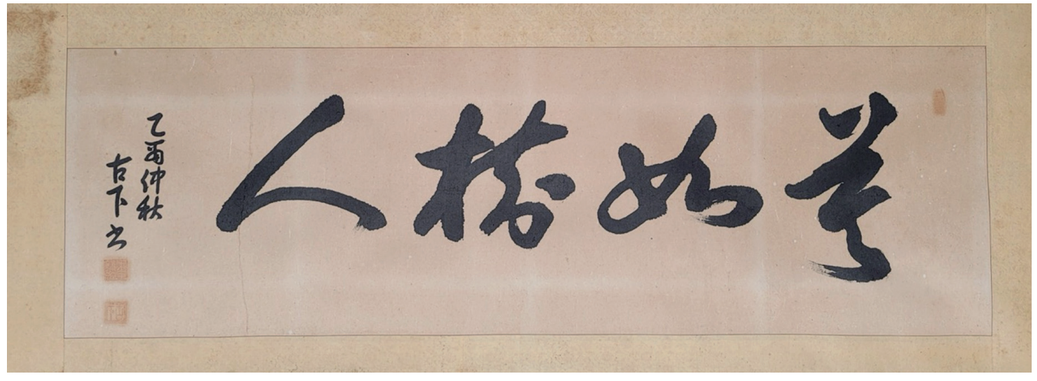
고하는 영학숙 수학 후 일본의 세이소쿠 영어학교, 긴죠우 중학교 등을 거쳐 와세다 대학과 메이지 대학 법과를 수료한다. 이후 국내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3·1운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한다.

그 이후에도 광복 후 불의의 흉탄에 따른 서거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에 치열한 배일 활동과 독립 사상의 고취에 분투한다. 그는 앞서 구술한 지인들을 동지와 친구 그리고 지사로 여기면서 신의로써 교유한다. 특히 인촌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숙명적 교유여서 이에 따른 몰이해를 굳이 해명하려 하지 않으면서 '다묵(多默)의 얼'로 넘어가곤 했다.

이러한 행동과 태도 그리고 의식과 정신은 그의 태생적인 자연 환경과 더불어 가풍의 훈도와 성재 기삼연(省齋 奇參衍) 의병장의 가르침, 한학과 동학의 스승인 김직부 선생께 배운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죽 선생과 그 형제[수산 송육, 守山 宋堉]의 가학은 신학문의 접근과 새 사상의 길을 여는 역할을 한다. 그는 실심에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마음의 진정성을 찾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이는 심즉리라는 즉 마음이 이치이며 진실이다고 여기면서 전통 주자학의 이기론과는 다른 성향을 보였다. 그 결과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선생께서는 임란 이후 이순신(李舜臣)만한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고하를 평가한다.

필자와 해설사가 답사한 영학숙(상월정)



막여수인(莫如樹人)

성재 의병장의 가르침은 담양 추월산과 순창 회문산 자락에서 전투를 하면서 은거와 도피처로 앞서 말한 병목 안의 고하 고택에 서실을 열면서 이뤄진다. 주로 주자 성리학의 성정론에 입각한 배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그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김직부 선생을 통한 동학의 배움은 전남 장성 백양사 청류암이나 전북 부안 내소사 청련암 등지에서 여러 동지들과 시대적 울분과 강개를 다지는 기능을 했을 것 같다

고하의 시대적인 성정과 태도, 독립 사상의 공적과 지향은 자연 환경과 수학 과정 그리고 교유 속에 이뤄졌다. 일제강점기 시대 〈삼천리〉 저널에 나오는 '교유록'이나 경성 복심법원 검사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왜정 시대 인물 사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드러난다.

그가 광복 후 쓴 것으로 보이는 액자에도 그의 일관된 성향과 태도가 드러나는데, 이는 〈관자〉에 나오는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만한 것이 없다(終身之計 莫如樹人)'는 정신으로 압축된다. 이를 정신의 틀과 미래로 강조하면서 배우고 교유하는 지침의 하부 구조로 삼은 것 같다.

다음의 편액의 글제로 그의 혼과 영을 확인한다. 관자의 글귀 중에서 종신지계 막여수인(終身之計 莫如樹人)은 일생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이른다.